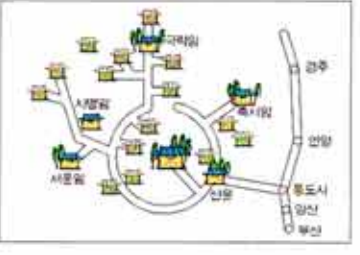


불보종찰 통도사의 藝僧들 '영축산 예맥' 잇는다

구름에 가린 맑은하늘 담아내듯...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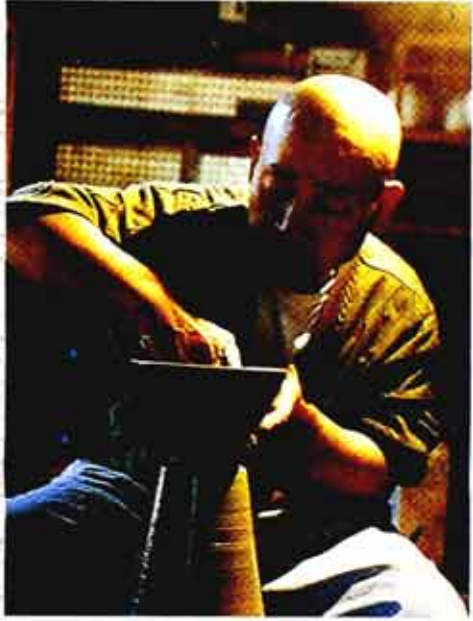
또 한차례 장미비가 쏟아 지다가 폭 그쳤다. 먹장구름이 걷힌 허공은 눈이 시리게 푸르다. 흥건히 젖은 영축산과 비를 멈추고 속살을 드러낸 하늘이 한데 어우러져 짙푸른 세상을 만들고 있다.

부처님이 장광설을 베푸시던 인도의 그 영축산을 닮았다 하여 이름마저 같이 쓰이는 영축산. 아홉마리 용이 물을 뿜으며(九龍吐水) 옹호한다는 영축산은 개산 1352년에 이르러는 통도사를 비롯해 장엄한 산자락 곳곳에 16개의 암자를 품고 있다. 통도사는 신라 선덕여왕 때(646) 자장율사(慈藏律師)가 당나라에서 부처님 진신사리와 금란가사 그리고 4백권의 대장경을 가져와 장엄한 이래로 수 많은 구도자와 발심법제자들이 찾아들어 일궈온 '불자종가(佛之宗家)'다. 불자종가일뿐 아니라 국지대찰(國之大刹)로도 불리는 통도사를 둘러싼 암자들이 오래전부터 세상의 아득을 집중시켜 왔다.



도에, 서화, 다도, 단청등에 남다른 열정으로 수행의 길을 넓혀가는 스님들이 세간의 귀와 눈을 영축산으로 끌어 들이는 것이다. 근세의 경봉스님이 일필휘지의 경지를 개척한 이래 죽림선자 기석스님, 백안스님등이 서도의 일가를 개척했고 혜각스님, 동원스님은 불화와 단청의 맥을, 명정스님은 다도의 길을 잇고 있다. 성파스님은 전통감지 재현에, 수안스님은 독특한 서화와 시 창작으로 주목받고 있다. 구도의 길에서 즐기는 예술의 세계가 마침내 수행의 본분과 다르지 않게 농익어 버린 스님들이 편만히 흐르는 예맥을 바탕으로 오늘날 영축산을 문화교도의 산실로 일구고 있다.

불보종찰 통도사, 적멸보궁 금강계단에 오체부지의 삼배를 올리고 예맥을 이으며 수행에 여념이 없는 스님들을 만나기 위해 암자로 이르는 길에 들어서면 어느덧 영축산의 푸른 기운이 온 몸을 감싼다.



도에 성파스님

통일염원 도자경관 굽기 8년째 흥과의 수행

서운암에는 가마가 있다. 성파스님은 이 가마에서 20년 세월동안 도자기를 구워왔다. 스님에게 있어 도자기는 공안(公案)이다. 흙을 빚는 무언의 시간 속에서 빚어내는 도자기를 통해 절대진리의 자리를 찾는 것이 스님의 수행이다.

"수행자에게는 어떤 행위는 수행이 되어야 합니다. 방편이 다르면 모든 행위속에 구도의 염원이 녹아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흙을 추는 사람의 모든 동작이 흙이듯, 나의 도예도 그런 과정 속에서 이뤄지는 수행 방편입니다."

수행과 예술이 틀어 안된 곳, 그곳에서 스님은 한 덩어리의 흙이 그릇이 되고 찻잔이 되는 희열을 건넵니다. 직접 구운 도자 불상으로 삼천불전을 장엄하기도 한 스님은 8년째 통일의 염원을 담아 관대대장경을 도자경관으로 굽는 일에 몰두하고 있다. 해인사 장경각의 고려대장경을 모두 16만8천여점의 도자경관으로 구워 내는 작업이다. 고려인들이 국난을 극복하려는 원력을 조성한 대장경을 스님은 분단현실의 극복을 염원하며 도자경관으로 조성하고 있다. 현재 80%의 진척을 보이고 있다.

"한잔의 도자경관이 나오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다. 스님은 흙의 배합, 불순물 제거, 반죽, 1년간의 자연건조, 추분구이, 재분구이 등 모든 작업을 서운암 곁의 작업장에 세 직접 한다. 수행이기 때문이다."

"도자대장정이 완성되면 남과 북이 함께 만날 수 있는 향선의 어느 지점에 봉안할 계획입니다. 우리민족에게는 통일만큼 절실한 화두가 없습니다. 나의 수행과 원력이 그 화두를 푸는데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조계종 중앙총회위원, 총무원 사회부장 규정부장 등 중견의 스님을 두루 거치고 통도사 주지, 원효학원 이사장을 역임한 성파스님은 도예뿐 아니라 시조와 전통 감지의 재현에도 남다른 조예를 갖고있다.

"매년 봄 초등학생에서 대학생까지 참가하는 시조 백일장을 개최하고 '성파시조문학상'을 수여하는등 시조를 통한 민족 정서를 살리기도 앞장서고 있다. 또 암자 인근 야산을 기간해 폭풍을 재배하고 거처서 천연염료를 추출, 천연 염색의 맛을 살려내는 일도 중요한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다. 무엇보다 6백여년간 묻혀 있던 감지의 비법을 터득해 96년 완성품을 공개하기도 했다."

도자경관을 만들고, 족발의 김을 매고, 사경을 하고, 한수의 시조를 읊조리는 스님. 영축산 서운암은 성파스님의 나즈막한 목소리처럼 고즈넉하지만, 알고보면 이 세상 어느곳보다 분주하다. 구도의 열정으로 완성되어가는 성파스님의 여지가 머무는 까닭이다.



서화 수안스님

삼라만상 스승 삼아 그림 그리고 시 쓰고

"나는 화가도 아니고 시인도 아닙니다. 부처님께 귀의해 수행하는 한 사람의 수행자일 뿐입니다. 내가 그리는 그림과 내가 쓰는 시는 수행의 길에서 얻는 부산물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예술이다 작품이다 하며 이름을 붙이지만 그것은 이미 나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정진을 하다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느낌을 그림과 시로 표현하는 것이 나의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통도사 뒷편, 영축산 중턱에 자리한 축사암은 수안스님이 그림과 시로 펼쳐내는 화엄세계다. 그러나 수안스님은 "하루 하루 살아가는 것, 말없는 나무나 풀 한 포기나 모두 진리를 살고 있는데 예술은 무엇이고 수행은 무엇이라며 굳이 귀찮게 할 필요가 없다"며 저 푸른 영축산이나 바라보다 가라"고 말한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게 수행이고 삼의 길인데, 쉬고 싶을 때 쉬고 잠자고 싶을 때 자는 것처럼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림도 그리고 시도 쓰는 것"이라는 부연이다.

누구에게 특별히 사사받은 적도 없이 시작한 스님의 그림과 시의 세계, 그것은 삼라만상을 스승으로 여기는 스님이 수행의 길에서 만나는 느낌들의 세계다. 그 세계를 스님은 이렇게 진한다.

"그림 한 점 그리고/ 시 한 수 짓고/ 하하하 즐기면서/ 어머니께 감사"(수안스님의 시 '화엄경 이야기')

그림도 시도 하하하 웃음으로 즐기는 수행일 뿐이라는 것이다. 그곳에서 감사드릴 어머니란 바로 우주법계일 것이다.

1979년 부산 여성회관에서 '이리 수재민 돕기 선묵전'을 시작으로 선묵화의 세계를 펼쳐 보이기 시작한 스님은 국내는 물론, 80년대 후반과 90년대 초반에 프랑스에서도 수차례 초대전을 열어 세계를 감동시켰다.

스님의 작품세계를 흠모한 아일랜드의 화가 폴카이씨는 아예 집을 사 들고 축사암으로 찾아 오기도 했다. 그는 91년 9월에 축사암을 찾아와 스님과 함께 생활하며 선묵화의 세계에 흠뻑 젖었다. 1년의 사사를 마감하며 전시회를 한 차례 열고 귀국한 폴카이씨는 "수안 스님의 그림은 기술로 배울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우주를 응시하고 그 진리를 건져 올리는 마음의 세계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오소리) <나의 노래> (소옥이) <산이 태엄빈 날>. 스님이 펴낸 시집의 어느 작품을 봐도 격을 두고 세상을 보는 세간의 습성을 털어내 버린 스님의 초연한 심성을 느낄 수 있다. 태엄 빈 마음, 태엄 빈 예술 바로 그곳에서 노니는 스님의 일상이자 곧 그림이고 시이기 때문이다.



다도 명정스님

"차 마심엔 격식없다" 한잔의 차로 '화두음미'

한잔의 차로 살림살이를 하는 스님. 극락암 삼소굴을 지키는 명정스님은 경봉스님의 선지를 대물림한 헌정한 다승(茶僧)으로 통한다. 그러나 스님은 세간에서 즐겨쓰는 '다선일어(茶禪一如)'나 '다선일미(茶禪一味)'라는 수식어들을 거부한다.

"차는 그냥 마시면 되는 것이지 무슨 도를 찾거나, 일상이 모두 도인데, 옛부터 선가에서 차를 즐겨 마셨지만 특별히 다도라고 말하지는 않았어."

다도라는 격식은 일본이 만든 것일뿐 선가의 이름은 아니란 설명이다. 그러나 스님이 "다도가 없다"고 말한다고 그 말을 그대로 받아 들여서는 안된다. 격식을 초월한 자리에서 음미하는 한 잔의 차야말로 선의 경지에 닿은 맛으로 통한다는 뜻을 이해하지 않으면 안된다. 스님은 재미있는 얘기 하나를 들려 주었다.

"오래전에 효당스님이란 분이 차도구를 완벽하게 갖추고 차를 달이는데 그때마다 입정할때 죽비를 치듯 차도구를 탁탁탁 치고, 찻잔을 들릴 때는 왼손으로 일인상을 그리길 잊지 않았지. 내가 바쁘네 뭐 그런 격식을 치리느냐고 묻자 그 스님은 '아, 이 사람이 바쁘긴 뭐가 바빠, 바쁠 것도 없는데 공연히 저가 만들어서 바쁜 것이지' 하더군요. 격식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격식을 초월하는 자유를 추구하는 것이 선가의 차 마시는 경지야."

경봉스님의 찻물을 풀이다가 자연스럽게 차를 즐기게 되어 격식까지 초월한 자리에서 차를 음미하는 명정스님을 고은 시인은 "그 헌한 정부의 운수행각을 감히 따를 자 드물거든 하물며 그의 버림글에 나왔은 차 한잔의 위엄이 능히 천리 밖에 달아 있다"고 찬했다. 버림글이라니 어디를 말하는 것일까. 선사로서 차를 마시되 한 순간도 놓을 수 없는 화두를 한잔의 차로 음미하는 자리를 말하는 것일다. 명정스님이 차를 마시는 자리는 일선천백의 공안이 대룡거리는 정진의 바람결이고 그곳에서 음미하는 차의 맛이란 공인의 속내를 들여다 보는 은근한 법멸의 맞닿 터이다. 스님이 달여내는 차 한 잔의 향기가 영축산을 감돌면 영축산도 찻잔 속에 잠겨 버리는 이치를 누가 알겠는가.

양산교육청의 요청으로 1983년부터 10년간 60여 학교 교사들에게 '차와 선'을 강연했던 스님은 4년간 <차이야기 산이야기>란 단행본을 통해 역대 선사들이 한 잔의 차를 마시며 절대진리의 맛을 즐기던 소식들을 전하기도 했다. 경봉스님의 선묵집과 일지, 편지글들을 정리해 책으로 엮어내고 <경허집> <한암집> <선심명>등을 번역해 낸 것도 스님이 누리는 차 한잔의 살림살이를 풍성하게 한 발사들이다.



단청 동원스님

"건물에 색칠한다 함은 자연과 조화 위한 것"

고찰을 찾아 고찰한 단청을 만날 때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감동을 받게 된다. 그 감동의 정체를 동원스님(사명암)은 한마디로 말한다.

"받아 들이는 아름다움."

가슴을 활라 열어 주는 일개용이다. 세월의 바람을 거부하지 않고 받아들인 단청이 만들어가는 퇴색의 아름다움, 자연의 아름다움이다. 거부하는 것은 자연이 아니다. 무엇이든 받아들이고 조화시켜 내는 것이 자연이다.

"단청은 건물과 주변의 자연과 조화를 이룰때 때 맞아 납니다. 단아한 건물에 너무 화려한 채색을 하면 건물은 죽고 단청만 남기 일수입니다. 자연스러운 조화의 채색을 한 눈에 가능하는 눈을 갖지 않고는 단청 일을 할 수가 없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색채와 건물과 주변의 환경을 한 눈으로 간파하고 가장 조화로운 문양과 색감을 선정하는 일에서 단청의 성패는 좌우된다는 설명이다. 동원스님은 18세때부터 붓을 잡았다. 단청장 혜각스님의 시자로 애제자로 시작한 단청 이력이 어느새 30성상을 지나고 있다. 혜각스님은 선 하나를 그리는데도 일생을 던지려고 가르쳤고 동원스님은 그 가르침을 묵묵히 받아들였다. 받아들여서는 단청은 시작한다는 가르침을 하늘같이 믿었기 때문이다.

붓은 시간까지 담요속에서 솜뿔을 켜 놓고 초(草)를 그리기도 했던 어려운 시기를 거치면서도 불사를 다 해보고 나면 그토록 장엄하게 단청된 건물에 매료되는 듯에 붓을 놓을 수가 없었다는 회고다.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오기까지는 날씨와 재료와 건강이 잘 조화되는 것도 중요한 조건이지만 무엇보다 마음이 우선이다. 나와 건물과 자연을 하나로 보는 마음의 눈을 감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

동학사, 운문사, 동화사를 비롯 1백여 사찰에서 단청봉사를 해 온 동원스님은 "그 모든 과정이 나를 넘어 건물을 장엄하는 수행이었다"며 수행자의 마음이 없는 단청이 될 수 없음을 강조했다. 사실 단청은 원래 스님들의 몫이었다. 요즘은 세간사람들이 더 많이 익히고 있지만.

동원스님이 가장 아쉬워하는 것은 재료가. 천연재료를 써야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천년의 아름다움을 지켜갈 것인데 화학염료를 마구 써대는 세대가 못내 아깝다는 것.

"영축산을 바라보며 시계질을 두고 변화 무쌍하면서도 정연한 질서를 지닌 자연을 배운다"는 동원스님은 "자연의 질서를 무시하는 인간의 탐욕이 어찌 천년의 세월을 두고 '받아들이는 아름다움'을 살리는 자연의 무진 살법을 들을 수 있겠느냐"며 영축산을 향해 눈을 돌렸다.